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서 블랙이글스 곡예비행 펼친다

내달 2일 '고흥우주항공축제' 개막
나로우주센터 일원서 에어쇼 펼쳐
T-50B 8대 10분간 비행기술 선보
휴머노이드 G1 로봇 체험 등 다채

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 개막식 메인 행사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Black Eagles)의 곡예비행 에어쇼가 펼쳐진다. 이번 에어쇼는 올해 축제 슬로건인 '우주의 신호(Space Signal)'에 맞춰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심장부인 고흥의 하늘을 무대로 전개되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B 8대가 투입돼 약 10분간 상공을 가르며 고도의 비행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8대의 항공기가 일사불란하게 간격을 유지하며 비행하는 '대형 변화 비행'을 비롯해 하늘에 대형 태극 문양을 그리는 '태극기동', 두 대의 항공기가 교차하며 하트 모양을 연출하는 '하트 기동' 등 특수비행팀 고유의 난도 높은 기동 퍼포먼스가 시연된다. 군은 개막일 당일 에어쇼 관람을 위해 대규모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가동한다. 관람 구역 곳곳에 현장 통제 요원을 대폭 확대 배치하고, 구급차와 소방차를 현장에 상주시켜 만일 의이상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망을 구축한다. 특히 초음속 엔진 특성상 항공기 기동 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굉음 등 소음 민원에 대비해 인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축제 당일 현장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신부나 영유아, 노약자를 동반한 관람객들

출하는 '하트 기동' 등 특수비행팀 고유의 난도 높은 기동 퍼포먼스가 시연된다. 군은 개막일 당일 에어쇼 관람을 위해 대규모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가동한다. 관람 구역 곳곳에 현장 통제 요원을 대폭 확대 배치하고, 구급차와 소방차를 현장에 상주시켜 만일 의이상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망을 구축한다. 특히 초음속 엔진 특성상 항공기 기동 시 발생하는 일시적인 굉음 등 소음 민원에 대비해 인근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를 강화한다. 축제 당일 현장 안내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임신부나 영유아, 노약자를 동반한 관람객들



'제16회 고흥우주항공축제' 메인 행사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펼쳐진다. <고흥군 제공>

초기에서 펼쳐지는 블랙이글스의 비행은 고흥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기대된다. "관람객 모두가 안전하게 에어쇼와 축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통제와 소음 예방 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고흥우주항공축제는 오는 5월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나로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누리호 발사 등 우주 탐사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축제는 개막식 에어쇼를 시작으로 우주인 카니발, 우주 토크쇼, 첨단 휴머노이드 G1 로봇 체험 등 최신 우주 과학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특화 콘텐츠가 상시 운영된다. /주성학기자

의 주의를 당부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전



지남해 섬진강기차마을 일원에서 개최된 어린이날 기념 특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공연을 보고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 어린이날 '벌룬 페스티벌' 팡파르

내달 3-5일 섬진강기차마을 일원
DJ랜덤 댄스·마술쇼·버스킹 등

지컬 '커다란 바퀴'와 디즈니 및 애니메이션 OST 콘서트, 매직 일루전 쇼, DJ 랜덤 댄스 등 주요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이와 함께 행사 3일 내내 마술쇼와 버블쇼, 벌룬아트, 키다리 빠에로 등 관람객 참여형 거리 버스킹 공연이 상시 운영된다. 주무대 옆 잔디광장에는 대규모 체험 부스가 조성돼 터널형 에어바운스를 비롯해 미니 오징어 게임, 명랑 벌룬 운동회, 애완새 교감 체험, 이동식 천문대 등 이색 프로그램이 집중 배치된다. 아울러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캐릭터 굿즈 만들기 등 상설 체험 행사도 병행 운영된다. 특히 군은 어린이날 당일인 5월5일 하루 동안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섬진강기차마을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연간 6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는 기차마을은 7만5천㎡ 규모의 1004장미공원과 요술랜드, 4D 영상관, 생태학습관, 놀이공원 등 부대 시설을 정상 가동해 축제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기차마을의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특색 있는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체험 부스와 밀착형 공연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화순군, 20일까지 로컬 전담여행사 공개 모집

최대 80만원 인센티브 지원

모집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화순 소재 여행사에는 지역 상생 가치가 부여된다. 재단은 최근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모집 방식을 대규모 단체관광과 소규모 개별·자유여행(FIT)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최종 선정된 전담여행사에는 맞춤형 인센티

브가 지원되며 버스 임차비의 경우 당일형 최대 30만원, 체류형은 최대 80만원까지 보조한다. 개인별 인센티브는 당일형 1만5천~2만원, 체류형은 1인당 최대 2만5천원을 지급한다. 평가 결과는 매력도와 실현 가능성을 심사해 오는 24일 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구종천 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전문 여행사와의 협업을 통해 화순이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여행 상품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장흥군-향원중, 1학교 1현충시설 결연 협약

역사 교육·환경 정화 공동 추진

크'로, 해당 시설은 지난해 4월9일 국가보훈부 현충시설로 공식 지정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현충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구역 내 환경 정화 활동, 현충시설 홍보 등을 공동 추진하며, 협약식 직후 장흥향원중 재학생 80여명은 해당 시설을 직접 견학하며 보훈 교육을 받았다. 장흥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역사관을 다질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충시설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체험형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영희기자

장흥군은 "최근 광주지방보훈청, 장흥향원중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학교 1현충시설 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결연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과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와 지역 내 현충시설을 직접 연계하는 실질적인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 결연 대상은 장흥향원중학교와 지역 보훈 공간인 '안중근의사 추모역사관 및 메모리얼 파

여수경찰, 체납 과태료 차량 합동 단속

대포차·무적차량 등 중점 점검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불법 차량 운영을 근절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여수경찰서에서는 "체납 차량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교통사고 위험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엄정한 단속을 통해 법적처리를 확립하고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여수경찰서는 12일 "오는 16일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시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 위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대포차 ▲무적차량 ▲운행정지명령 차량 등 불법 운행차량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시내 주요 교차로와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지점을 선정하고, 현장

담양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공모 선정

6월부터 43개소 요금 할인

박, 식음료, 관람, 체험, 쇼핑 등 5개 분야 총 43개 지정업소에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호텔 드림즈 숙박료(평일 15%·주말 10%), 달라이트 담양관람료(평일 20%·주말 10%), 담양항공 체험료(30~35%) 등이다. 군은 이를 통해 도내 최상위권의 생활인구 규모에 비해 체류 시간이 유독 짧은 고질적인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식 서비스 전까지 관광공사와 협력해 가맹점 내 QR 스키너 설치 등을 완료할 방침이며, 주민증 발급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임순미 참여소통실장은 "경쟁력 있는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광객이 담양의 매력을 경험하며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기자

담양군은 12일 "인구 감소 위기 극복과 단기 체류형 관광 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 상권 인프라와 연계한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6년 디지털 관광주민증 신규 지자체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오는 6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제도로, 올해 담양군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자체가 신규 지정됐다.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방문객은 지역 내 숙



보성군 "전남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세요

오는 20일까지...연수비·숙소 제공

참가 신청은 귀농·귀촌 종합 플랫폼 '그린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체류 기간 동안 월 30만원의 연수비와 오션뷰 숙소가 무상으로 제공되며, 프로그램은 녹차, 감자, 키위 등 지역 특산물 영농 실습과 맞춤형 귀농 컨설팅으로 구성됐다. 마을 이장 등 전담 멘토가 배정돼 주거 및 토지 관련 현장 상담을 직접 지원하며 초기 정착을 돕는다. 보성군 관계자는 "체류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라며 "참가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보성군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체류형 귀농·귀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2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회천면 다함울림촌 일원에서 진행되는 '2026년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집중 모집한다. <사진> 모집 대상은 전남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시민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참가자는 오는 5월1일부터 약 3개월간 보성에 직접 체류하며 농촌 생활을 경험하게 된다.